

AI 시대 전문 번역사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제언: 태세 전환, 언어 수월성 재정립, 직업 정체성 재구축*

이영훈(고려대학교)

1. 서론: AI 전환(turn)기와 전문직의 위기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테크놀로지와 신경망 기계번역(neural machine translation, NMT)의 비약적 발전은 번역 산업의 구조와 번역사의 전문직 입지에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를 야기했다. 더구나 기계번역이 이미 일상적인 수준에서 높은 품질을 제공하고 대규모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s, LLM)은 상당수의 텍스트 유형과 발화에 대해 전문가적 생산 수준

* 본 연구는 2026학년도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특별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그리고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세 차례 학술대회 발표 내용을 종합한 것이다. 부족한 글을 주의 깊게 읽고 충심어린 조언과 준엄한 비판을 아끼지 않으신 세 분의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

- ‘사이보그지만 괜찮아’ — AI시대 통번역사의 바람직한 태세 전환.
한국번역학회 2025년 가을철 학술대회.
- AI시대 번역 교육에서 언어 수월성 개념의 재정립.
한국번역학회 2026년 봄철 학술대회.
- AI시대 전문 번역사의 지속 가능한 정체성 구축 작업(Identity Work).
동국대 번역학연구소 2026년 봄 학술대회.

을 넘어섰다는 판단 하에 ‘우리가 기존에 알던 통번역(학)의 종언’을 알리는 해외 학자들의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Fantinuoli, 2026; Pym, 2026). 이에 국내에서도 이같은 위기 담론을 공유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를 촉발하려는 것이 본 논문의 의도이다. 본고는 그 일환으로 향후 번역사가 단순히 기계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주체로 거듭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 배경

최근 인공지능(AI) 기술, 특히 대규모 언어 모델(LLM)과 생성형 사전 학습 변환기(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GPT) 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번역 산업의 구조와 번역사의 전문직 정체성에 근본적인 변화를 강요하고 있다. 2022년 말 ChatGPT의 출시 이후 시작된 번역기 성능의 ‘퀀텀 점프’는 단순한 언어 전환을 넘어 텍스트를 수신자의 프로필에 맞게 수정하고 적응시키는 수준에 도달했으며(Ayvazyan et al., 2024, p. 122), 스마트 안경을 통한 실시간 번역(심지혜, 2025)이나 줌(zoom) 등에서의 실시간 음성 번역 서비스(조운주, 2026)는 ‘통번역사 없는 세상’에 대한 담론을 현실화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숙련된 번역사들을 자신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기계 생성 텍스트의 오류를 바로잡는 ‘품질 관리자(quality controller)’로 전환시켜 번역사의 직무를 내부적으로 구조 조정하고 있다(Green, 2026).

특히 시장이 기계번역의 결과물을 ‘쓸 만한(good enough)’ 것으로 수용하기 시작하면서(Green, 2026), 숙련된 번역사들이 기계번역 결과물을 수정하는 ‘후처리 기술자’로 전락하거나 전문 번역사가 보유했던 배타적 지식의 통제력과 그 지식이 실어 나르는 사회·문화적 가치가 훼손되는 ‘탈전문화(deprofessionalization)’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제 논의의 초점은 인공지능이 번역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원을 넘어, 시장 표준이 바뀐 상황에서 전문직의 직무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라는 생존의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 미래의 번역사는 인간과 기계 간의 대립을 상징하는 ‘안드로이드(android)’형 모델이 아닌, 기술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신체적·인지

적 한계를 확장하는 ‘인간-기계 하이브리드’ 혹은 ‘사이보그(cyborg)’로서 자신의 ‘태세(posture)’를 재정립해야 하는 시점에 서 있다. 이미, 해러웨이(Haraway, 1985, p. 66), 브라이도티(Braidotti, 2019) 등 포스트휴머니즘 이론가들은 인간의 사이보그적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설파한 바 있으며, 언론(Johson, 2022)에서도 미래의 번역사는 인간-기계의 혼종인 사이보그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기술적 격변기 속에서 위기 극복의 핵심 동력으로 재조명받는 것은 바로 전통적인 ‘기본기’이다. 최근의 일련의 연구조사들(송연석, 2024; 이영훈 등, 2026; 이지은과 최효은, 2025)에 따르면, AI 시대에도 ‘언어 수월성(language proficiency)’에 근거한 ‘언어 전환(language conversion)’ 능력은 번역사의 대체 불가능한 ‘기본 능력’이자 ‘전문직 정체성의 핵심’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내 통번역 교수자들 다수의 의견이었다. 또한 기술적 변화로 인해 번역사 직업이 정체성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적 전문성은 미래의 어떤 직무에서도 심장부 역할을 하리라는 기대가 국내 통번역 교육계에 잔존하고 있음이 본 조사들을 통해 확인되었다.

이는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수많은 대안 중 최적의 결과물을 판별하고 전략적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탄탄한 언어 능력과 문화 소통 능력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며, 이러한 이중언어 능력이 부족할 경우 오히려 인공지능에 종속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번역사가 단순한 ‘언어 변환자(language converter)’를 넘어 고도의 언어 분석력과 감수성으로 텍스트를 조율하는 ‘번역 감별사(translation connoisseur)’가 되어야만 한다고 본다.

한편, 인간의 인지 능력을 모방하여 인간 사회의 전통적 전문 영역을 대체하는 ‘안드로이드’형 AI의 ‘침공’은 통번역 분야에만 한정되어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최근 들어 법률, 회계, 전산 분야 등에서 AI의 도입으로 인한 업무의 자동화가 변호사, 회계사, 프로그램 개발자 등의 전문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언론 기사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같은 위기 상황을 타개하는 방안으로 AI에게 일정 부분 업무를 위임한 후 그 결과를 검증하고 개선하여 고부가가치 영역에 활용하거나(정하정, 2026), AI를

활용하여 자신의 업무 영역 밖으로 전문성을 확장하는(최서은 등, 2026) ‘플러스 AI(X plus AI)’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 점에서 오늘날의 번역사도 AI를 업무에 적극 활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보다 폭넓게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번역사 그 이상(translator plus)’의 정체성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사회적 실천은 다른 실천들과의 연계나 의존 관계가 결여될 경우 쉽게 사회에서 퇴출되는 경향을 보였다(Olohan, 2021, pp. 88-89). 따라서 매우 오래된 실천의 역사를 자랑하는 번역사들 또한 AI 시대의 급격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폐쇄적 전문성¹⁾에 매몰되기 보다 번역 너머에서 다른 실천들과의 연계 가능성²⁾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AI)의 공세로 인한 번역사 전문직의 위기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세 가지 차원의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의식적인 선택을 통한 전략적 ‘태세(posture) 전환’, 둘째, 인공지능이 모방할 수 없는 ‘고도 언어 인지(higher language cognition)’에 기반한 ‘언어 수월성 개념의 재정립’, 셋째, 인공지능 테크놀로지와 협업하며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직업 정체성 재구축 작업(identity work)’이 그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인공지능 시대에도 인간 번역사가 ‘통합적 언어 조율사’로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유지하며 지속 가능하게 활동할 수 있는 발전적인 직무 모형을 구상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다만 본고는 생성형 AI 시대에 전문 번역사가 마주한 지속 가능성의 위기를 타개할 방안을 최근 해외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추론해 본 것으로 포괄적이고, 선언적이며, 강령적인 제안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엄격한 경험적 연구 방법을 토대로 실증적인 연구 절차를 따르기 보다 개념

-
- 1) 사실, 번역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가리키는 ‘번역사(翻譯士)’라는 명칭은 한자 ‘士’로 대표되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직 범주에 번역 업무 종사자를 포함시키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이 개념은 최근에야 한국어 사전에 등재된 ‘통역사(通譯士)’와는 달리 아직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이다.
 - 2) 가장 최근(2024. 12. 12.)에 발표된 고용노동부 고시 한국고용직업분류에 따르면 ‘번역가 및 통역가’는 ‘예술·디자인·방송직’이라는 중분류 하에 작가 및 출판물 전문가와 함께 ‘작가·통번역가’ 범주에 속한다. 따라서 번역사는 이같은 사회적 범주화를 감안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보다 확장하고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적 성찰과 문헌 연구를 토대로 한 이론적 시론에 해당한다.

2.1 연구 질문

본 논문은 번역 테크놀로지의 ‘퀀텀 점프’가 초래한 번역사 직무의 위기 상황에서 전문 번역사가 생존하고 진화하기 위해 답해야 할 핵심 질문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첫째, 기계번역(NMT) 및 생성형 AI 번역이 ‘쓸 만한(good enough)’ 품질을 제공하는 환경에서, 번역사는 직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기계와 경쟁하는 대신 어떠한 전략적 ‘태세(posture)’를 선택해야 하는가?

둘째, AI가 대체 가능한 기초 언어 인지(basic language cognition) 수준을 넘어, 인간 번역사만이 제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언어 수월성’의 구성 요소는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재정의해야 하는가?

셋째, 전통적인 ‘언어 변환자’라는 정체성에서 탈피하여, 전문 지식과 컨설팅 역량을 결합한 ‘번역사 그 이상(translator plus)’으로 거듭나기 위한 구체적인 정체성 구축 작업(identity work)과 전략적 실천 방안은 무엇인가?

2.2 세부 연구 목표

본 연구는 위 연구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음으로써 궁극적으로 다음의 세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첫째, 번역사의 ‘언어 수월성’을 둘러싼 기존의 고정관념을 점검하고, 기술 변화에 따른 전문직 위기의 본질인 ‘탈전문화’ 양상을 분석한다.

둘째,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추구되어야 할 ‘고도 언어 인지’ 및 ‘어법 표현(phrasology)’ 전문성을 탐색하고, AI 번역 결과물을 조율하는 ‘번역 감별사(translation connoisseur)’로서의 역량 모형을 확립한다.

셋째, 번역사가 테크놀로지를 내면화하여 신체적·인지적 한계를 확장하는 ‘사이보그 번역사’ 모델을 정립하며, 기계가 제공하지 못하는 창의적 해석과 윤리적 책임을 창출하는 주체적 위치를 모색한다.

넷째, 번역사 개인이 ‘커뮤니케이션 컨설턴트’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자기 서사 구축, 디지털 브랜딩, 관계 협상 등의 구체적인 생존 전략을 제안하

고, 이를 뒷받침할 교육 및 제도적 변화 방향을 제시한다.

궁극적으로 본 논문은 번역사를 단순한 ‘언어 기술자’가 아닌, AI 도구를 통제하고 최적화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통합적 언어 조율사’로 재정의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

3. 이론적 배경

이제부터 우리는 ‘사이보그 번역사’, ‘고도 언어 인지’, ‘번역사 그 이상’, ‘정체성 구축 작업’ 및 ‘전략’이라는 다섯 가지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고자 한다.

3.1 테크놀로지와 인간의 통합: ‘사이보그 번역사’ 담론

AI 시대 인간 번역사의 생존 모델로 제시되는 ‘사이보그(cyborg)’는 기계나 외부 장치를 통해 신체적 한계나 능력을 확장한 존재로, 인간과 기계의 통합 시스템을 의미한다³⁾. 사이보그 번역사 담론은 번역과 테크놀로지 발전의 교차점에서 형성된 개념으로, 지난 수십 년간 그 의미와 범위가 점차 확장되어 왔다.

초기 논의는 기계번역의 한계를 인식하는 데서 출발하였다. 로빈슨(Robinson, 1998, p. 87)은 모든 기계번역 시스템이 인간의 개입 없이는 전문적 수준의 번역을 생산할 수 없음을 지적하며, 이를 인간-기계 인터페이스를 전제로 한 ‘사이보그 번역 시스템’이라고 규정하였다. 이어서 그는 “모든 번역사는 사이보그다”라는 선언을 통해 번역 행위 자체가 인간과 테크놀로지의 협력적 산물임을 강조하였다(Robinson, 1999/2000, p. 221).

2000년대 초반에 이르러 크로닌(Cronin, 2003, p. 114)은 기계가 인간 번역사를 완전히 대체하는 가능성을 비현실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오히려 인간과 기계가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하는 ‘번역 사이보그(translational cyborg)’의

3) 사전적 정의(Oxford English Dictionary)에 의하면, 기계가 인간의 형상을 갖게 되는 것이 ‘안드로이드(android)’인 반면, ‘사이보그(cyborg)’는 인간이 기계를 통해 자신의 신체적 한계를 확장하고 인간-기계의 통합 시스템을 형성하는 것을 가리킨다.

잠재성을 제시하였다. 샤(Shah, 2008)는 “사이보그는 번역사로서, 텍스트를 번역하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자신의 정체성들을 만들어내며, 그 과정에서 번역의 기법들을 자기 안에 내재화한다”고 주장하였다(p. 214). 이 시기의 담론은 기계를 인간 번역사의 단순한 도구적 보조로 간주하는 단계를 넘어, 인간과 기계의 깊은 상호작용을 탐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이보그 번역사’ 개념이 기계번역을 넘어 인간의 신체적·기술적 확장으로 정의되면서, 토레스-호스텐치(Torres-Hostench, 2022)는 뇌, 눈, 입, 귀, 손, 발 등 신체 각 부위에 테크놀로지가 결합된 ‘사이보그 번역사’의 미래상을 제시하였다. 한편, 로빈슨(Robinson, 2022, p. 45)은 번역 행위가 단순히 외화된 언어 처리에 국한되지 않고 ‘체화된 언어(embodied language)’의 전달로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는 번역을 육체에서 분리된 언어의 전송이 아니라, 신체적 경험과 감각을 포함한 언어적 수행으로 재구성하려는 시도였다.

최근의 논의는 기술적 차원을 넘어 사회·정치적 함의를 포함하게 되었다. 바온 세니타고야와 게레로 가르시아(Bayón Cenitagoya & Guerrero García, 2024, p. 103)는 사이보그 개념을 통해 번역, 젠더, 테크놀로지의 교차점을 탐구하며, 번역이 여성화된 직업으로서 자본주의적 시장 논리에 종속된 현실을 비판하였다. 이들은 사이보그를 ‘정치적 허구이자 잠재적 해방 도구’로 제시하며, 번역사가 테크놀로지와 결합된 존재로서 새로운 주체성을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강조하였다.

종합해 볼 때, 사이보그 번역사 담론의 변천 과정은 번역학이 단순히 언어 처리 기술의 발전을 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과 테크놀로지의 결합을 통해 번역사의 새로운 정체성과 사회적 의미를 모색하는 학문적 장으로 진화했음을 보여준다. 현대적 맥락에서 ‘사이보그 번역사’는 테크놀로지를 단순히 도구로 사용하는 차원을 넘어 테크놀로지를 내면화하고 자신의 능력을 확장하는 ‘증강 번역사(augmented translator)’를 지향한다. 이는 인간 번역사가 기계에 의해 대체되는 ‘안드로이드’ 모델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각 번역 공정에 인간이 주체적으로 개입하는 ‘인간 참여(human-in-the-loop)’형 협업과 전체 번역 공정을 제어하는 ‘인간 중심 인공지능(human-centered AI)’ 모델을 실현하는 핵심 주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3.2 대체 불가능한 전문성의 핵심: ‘고도 언어 인지’

번역사의 언어 능력에 대한 논의는 홀스틴(Hulstijn, 2015)의 ‘언어 수월성(language proficiency)’ 구분을 기초로 한다. 그는 언어 능력을 ‘기초 언어 인지(basic language cognition, BLC)’와 ‘고도 언어 인지(higher language cognition, HLC)’로 나누었다. 기초 언어 인지(BLC)는 모든 모국어 화자가 공유하는 기본적인 발화 및 구문 능력으로, 생성형 AI 번역이 모방하고 대체할 수 있는 영역이다. 반면 고도 언어 인지(HLC)는 지능, 교육, 전문적 노력을 통해 개별적으로 발달하는 능력으로, 광범위한 어휘, 복잡한 논증, 고도의 수사적 통제력을 포함하며 전문 번역사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무한 확장 영역이다.

사실, 홀스틴의 기초 언어 인지(BLC)와 고도 언어 인지(HLC)의 구분은 전문 통번역사의 언어 능력을 대상으로 개발된 것은 아니며 L1, L2 습득 및 이중언어 능력 측정을 위한 것이다. 그렇지만 본고는 이를 전문 번역사의 언어 능력에 적용하였고, 티셀리우스(Tiselius, 2025)도 이미 통역사의 언어 수월성 정의를 위해 홀스틴의 구분을 도입한 바 있다. 더구나 홀스틴은 2015년 저서에서 “고도 언어 인지(HLC) 발화가 구어 뿐만 아니라 문어와도 관련된다”(p. 22)고 밝히고 있으므로 그의 구분이 번역사의 문어 수월성 정립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인공지능(AI)이 일상적인 의사소통을 상당 부분 대체하는 상황에서 번역사의 언어 수월성은 단순한 기초 언어 인지(BLC)를 넘어선 고도 언어 인지(HLC) 수준에서 정의되어야 한다. 이는 언어 능력을 단순히 ‘언어를 아는 것’으로 한정하지 않고, 교육 수준, 전문 분야의 지식, 지적 능력이 결합되어 복잡한 담론을 이해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재정의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적인 텍스트 분석 능력, 복잡한 논리 구조 파악, 그리고 이를 목표 언어의 맥락에 맞게 재구성하는 능력이 번역사의 핵심 역량으로 간주된다.

현 시점에서 인공지능(AI)은 이미 유럽 공통 언어참조 기준(CEFR) 기준 B2/C1 수준의 일반적 이중언어 구사력을 모방할 수 있다⁴⁾. 이에 따라 전통

4) Open AI와 같은 생성형 AI 개발 기업들의 발표에 따르면, AI가 현재도 각종 추론 단계에서 인간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생성형 AI의 성능이 쿼터 점프를 지속해가는 한, 언젠가 인간의 고도 언어 인

적인 어학 등급만으로는 전문 번역사의 역량을 측정하기 어렵다. 기계 번역과 인공지능(AI)이 규범적인 언어 전환을 자동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단순한 어휘·문법 지식이나 정태적 이중언어 구사력은 인간 번역가의 언어 수월성을 입증하기에 불충분하다. 오히려 번역사의 한계는 외국어(L2)가 아닌 모국어(L1)의 구사력에서 드러나며, 직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텍스트 의사결정 및 정당화 능력이 요구된다. 더구나 인간 번역사는 인공지능(AI)이 도달할 수 없는 이 고차원적인 인지 영역을 바탕으로 기계의 결과물을 ‘감별’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번역사의 고도 언어 인지(HLC)는 인공지능(AI)이 대체할 수 없는 전문성과 창의성을 입증하는 핵심 지표로 자리매김한다. 이는 번역사가 단순한 언어 중개자가 아니라, 복잡한 담론을 분석하고 재구성하는 지적 주체임을 강조하며, 번역의 미래가 인간의 고도 언어 인지(HLC) 능력에 의해 지속적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3 번역사의 직무 위기 타개책: ‘번역사 그 이상’을 위하여

AI와 자동화 기술의 발전은 번역사의 직무와 정체성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뎀(Pym, 2026, pp. 31-32)은 자동화가 곧 전통적 의미의 번역을 대체할 것이며, 미래의 다언어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은 보다 모험적이고 창의적인 과업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 전망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번역사는 단순히 텍스트를 옮기는 존재가 아니라, 더 높은 자율성과 의사결정 능력을 갖춘 협업적 주체로 재정립되어야 한다(Spinzi, 2021, pp. 8-9). 번역사의 직무 위기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비전문가의 시장 참여와 기계번역의 발

지(HLC)를 모방할 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 단계에선 AI가 적어도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프랑스어 등 데이터가 풍부한 ‘고자원 언어(High-Resource Languages)’에서 원어민에 가까운 문법적 정확성과 어휘력을 보이는 반면, ‘저자원 언어(Low-Resource Languages)’에서는 문법 오류나 어휘 부족으로 인해 품질이 급격히 저하되는 언어 간 격차가 반복적으로 보고된다(Qin et al., 2025). 따라서 적어도 고자원 언어에서는 생성형 AI가 인간의 일반적 언어 구사력을 모방하는 단순 기초 언어 인지(BLC) 수준에는 도달했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고도 언어 인지를 필요로 하는 고급 언어 활동으로서의 창작, 철학 논증, 비평 등의 분야에서는 일반인의 평범한 수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전은 번역사의 전문성과 보수를 위협하고 있다(Sakamoto, 2021). 그러나 일부 시장 영역에서는 번역사가 단순한 언어 변환자가 아니라 컨설턴트로서 인정받으며, 다른 전문직과 동등한 수준의 보상을 받는 사례가 존재한다(Katan & Spinzi, 2022, pp. 77-78).

이러한 상황에서 제시되는 개념이 바로 ‘번역사 그 이상(translator plus)’이다. 이는 번역을 직업 정체성의 일부로만 간주하고, 전문 지식, 추가 서비스, 진취적 자세를 통해 전통적 번역 업무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는 번역사를 의미한다. 기계번역이나 번역 도매 시장(bulk market)이 대체할 수 없는 ‘플러스’ 요소가 번역사의 지위를 높이고 명품 시장(premium market)에서 더 나은 보수를 가능하게 한다는 논리이다. 특히 협업 모델의 전환이 강조된다. 전통적으로 수직적 구조의 번역 생산 과정에서는 번역사가 명령 체계의 하위에 위치하여 수동적으로 텍스트를 옮겼지만, 새로운 협업 구조에서 번역사는 저자 및 의뢰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논의하며 원문 수정까지 참여하는 컨설턴트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번역사가 단순한 과업 수행자가 아니라 조직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가로 자리매김하게 한다.

요컨대, ‘번역사 그 이상(translator plus)’은 번역 기술의 숙련도를 넘어 ‘커뮤니케이션 컨설턴트’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장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전략을 번역사에게 요구한다. 이는 번역사가 현재의 직무 위기를 극복하고, 자동화 시대에도 대체 불가능한 전문성을 확보하는 핵심적 방향성을 제시한다.

3.4 주체적 정체성 재정립: ‘정체성 구축 작업’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서 번역사는 ‘정체성 구축 작업(identity work)’을 수행해야 한다. ‘정체성 구축 작업’이라는 개념은 1980년대 초반 사회학자들에 의해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스노우와 앤더슨(Snow & Anderson, 1987)의 노숙인 연구를 계기로 학문적 이론으로 확립되었다. 두 저자는 정체성 구축 작업을 “개인이 자아 개념(self-concept)을 지지하고 이에 부합하는 개인적 정체성을 형성, 제시, 유지하기 위해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p. 1348)으로 정의하였다.

초기 정체성 구축 작업 연구에서는 정체성이 사회적 역할에 의해 고정

된 것으로 간주되어, ‘정체성 이야기(identity talk)’, ‘물리적 설정 및 소품 활용’, ‘선택적 연대’와 같은 활동들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이후 정체성은 고정된 사회적 역할이 아니라 불안정하고 끊임없이 수정되는 ‘진행 중인 프로젝트’로 이해되었으며, 전문직 교육과 사회화 과정 속에서 정체성 구축 작업은 ‘되기(becoming)’, ‘정렬하기(alignment)’, ‘탐색하기(exploring)’, ‘분투하기(struggling)’라는 네 가지 유형으로 체계화되었다.

번역사의 경우, AI 시대라는 기술적·사회적 변화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하는 전문가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정체성 구축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AI 테크놀로지로 인해 번역 업무가 단순 오류 수정(MTPE)으로 격하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번역사는 스스로를 평범한 ‘언어 기술자’가 아닌 ‘의미 설계자’ 혹은 ‘문화 중재자’로 정의하는 정체성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이는 번역사에게 의미와 자존감을 부여하는 ‘정체성 동기(identity motives)’를 자극하여 기술적 변화를 수용하고 전문직으로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게 만드는 동력이 된다.

3.5 장 내 입지 확보하기: ‘전략’

한편, 번역사의 정체성 재구축은 부르디외(Bourdieu)적 관점의 ‘전략(strategy)’ 실천으로 완성된다(De Peiris & Kaluarachchi, 2023, pp. 164-169). 여기서 ‘전략’(Sapiro, 2020)이란 전통적 의미의 합리적 계획과는 달리, 특정 사회 활동장(field) 내에서 위치를 보존하거나 변화시키기 위한 역동적 실천 과정으로 이해된다. ‘전략’은 의식적 계산의 결과라기보다 사회화 과정을 통해 습득된 ‘게임에 대한 감각(feel for the game)’에 가깝다. 이는 끊임없는 투쟁과 ‘위치-취하기(position-taking)’로 나타나며, 전략의 성패는 행위주체가 동원할 수 있는 문화자본, 사회자본, 언어자본, 상징자본에 달려 있다. 따라서 ‘전략’과 ‘정체성 구축 작업’은 상호 분리되지 않고 병행되는 ‘사회-상징적 작업(social-symbolic work)’으로, 정체성은 전략적 실천을 통해 표현되고 강화된다. 또한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이나 도덕적 고결함은 장(field) 내에서 상징자본으로 기능하여 해당 행위주체에게 전략적 우위를 제공한다.

AI 테크놀로지의 급격한 발전은 번역사들에게 ‘탈전문화’라는 위협을 가한다. 이는 전문가가 보유했던 배타적 지식에 대한 통제력을 약화시키고, 번

역사의 역할을 단순한 ‘언어 기술자’로 격하시킬 위험을 내포한다. 이러한 상황은 번역사들에게 ‘정체성 동기’를 자극하며, 특히 ‘의미’와 ‘자존감’에 대한 욕구를 강화하여 강도 높은 정체성 구축 작업을 수행하게 만든다. 과거 번역사가 언어 간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는 전문가였다면, 현재는 AI가 기본적인 번역 작업을 수행하면서 단순 ‘언어 변환자’로서의 번역사의 역할은 축소되었다. 이에 따라 번역사는 AI와 경쟁하기보다 협업하며, 문화, 맥락, 전문성을 해석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곧 지속 가능한 전문직 ‘정체성 구축 작업’이자 부르디외식 ‘전략’의 실천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번역사가 사회 활동장(field)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고 확장하는 능동적 삶의 기술로 자리매김한다.

정리하자면, AI 시대의 번역사는 자신이 보유한 문화자본, 언어자본, 상징자본을 동원하여 단순 서비스 제공자에서 ‘커뮤니케이션 컨설턴트’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는 전략적 선택을 내려야 한다. 정체성은 이러한 전략적 실천을 통해 표현되고 강화되며, 역으로 기술 환경의 변화는 번역사로 하여금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새로운 정체성 구축 작업을 수행하게 만든다. 결국 AI 시대의 번역사의 ‘전략’은 테크놀로지에 매몰되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시장에 증명하며 독보적인 전문직 지위를 확보하는 능동적인 삶의 기술이라 할 수 있다.

4. 번역사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제언

본 연구는 인공지능의 공세 속에서 전문 번역사가 독보적인 가치를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활동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전략적 태세 전환, 언어수월성의 재정립, 그리고 전문직 정체성 재구축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고찰한다.

4.1 전략적 태세 전환: ‘안드로이드’를 넘어 ‘사이borg’ 번역사로

AI와 기계번역 테크놀로지가 급속히 발전하는 시대에 번역사의 역할은 단순한 언어 변환을 넘어 인간과 기계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전문성을 발휘

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테크놀로지와 대립하는 전통적 인간상을 탈피하여, 테크놀로지를 내면화한 ‘사이보그 번역사’로의 태세(posture) 전환⁵⁾이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신경망 기계번역(NMT)이 개발되기 이전에는 번역 시장이 순수 인간 번역 대(對) 기계 보조 번역으로 나누어졌고 ‘번역 기술/예술(art of translation)’을 담당하는 번역사(士)/번역가(家)의 태세를 바탕으로 인간 번역자의 기세가 등등했다면, 신경망 기계번역 시대의 인간 번역자는 인간 번역 대 기계번역으로 시장이 재편된 상황에서 명품시장의 번역사(士)로 남느냐 아니면 도매시장의 후처리 기사(技士)로 전락하느냐 하는 태세 선택의 기로에 처했다. 더 나아가 2022년 말 생성형 인공지능(GenAI) 번역이 출시된 이후 순수 기계번역 대 인간 보조 번역으로 시장이 다시 편성된 지금, 인간 번역자는 적자생존의 위기 속에서 새로운 ‘태세 전환’을 모색해야 할 형편이다.

사이보그 번역은 각 번역 공정에 인간의 인지적 판단을 개입시켜 품질을 보장하는 ‘인간 참여(human in the loop)’형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하며, 테크놀로지를 단순한 도구가 아닌 신체적·인지적 확장 수단으로 삼아 인간의 번역 능력을 증진시키는 ‘증강 번역사(augmented translator)’의 개념을 포함한다. 또한, 인공지능에 주도권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전체 공정을 제어하고 관리하는 ‘인간 중심 인공지능(human-centered AI)’을 지향한다. 이

5) ‘posture’는 애초에 부르디외(Bourdieu)의 주요 사회학 개념이 아니었으나 추후 부르디외 계열의 문학 사회학자들과 교육 사회학자들에 의해 적극 개발되고 활용되었으며, 무스메치(Musumeci, 2025)가 번역가 연구에 처음 도입하였다. 한국어에서 ‘태세(態勢)’로 번역될 수 있는 이 개념은 “각종 사회 활동장(field) 내에서 주체(agent)가 객관적 위치(position)를 차지하는 주관적인 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다. 아비투스(habitus)가 교육 및 각종 사회 활동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무의식적으로 형성되어 관찰이 불가능하고 변화되기 어렵다면, 태세(posture)는 각 활동장에 따라 형성되어 관찰 가능하고 변화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따라서 번역사의 태세는 번역 장 내의 환경에 따른 제약들을 감안하여 번역 주체가 의식적으로 장(field) 내 입지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번역사의 태세는 교육 과정에서 이를 정립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데, 활동 중인 번역 주체의 행동을 통해 태세 점검이 가능하며 번역 장 내 구조적 변화나 중대 사건 발생에 따라 ‘태세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는 AI를 단순히 활용하는 단계를 넘어 AI를 바탕으로 번역 업무 프로세스 전체를 재설계하는 것을 전제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이보그 번역사 양성을 위한 교육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기계번역(MT)과 생성형 인공지능(GenAI)의 활용이 가속화되는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테크놀로지 기반의 상황 학습 및 교육(situated learning and education)을 도입해야 한다. 둘째, 기계번역 후편집(MTPE)과 AI 번역 공정에서 인간 중심성을 확보하기 위해 프로젝트 관리(project management)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 번역사가 단순히 도구를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 ‘번역 문해력(translation literacy)’⁶⁾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넷째, 번역사의 역할을 단순한 언어 변환자에서 확장하여 ‘언어 서비스 전문가’, ‘기계 번역 컨설턴트’ 등으로 고급화하는 교육이 요구된다.

결과적으로, 사이보그 번역사 양성은 인간과 기계의 협업을 전제로 하며, 기술 활용 능력과 더불어 인간 중심적 판단, 시장 신뢰 확보, 그리고 전문적 역할 확장을 포함하는 종합적 교육 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번역사가 단순히 기계의 보조자가 아니라, 기술을 능동적으로 활용하고 제어하는 주체로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새로운 전문적 모델이 제시될 것이다.

4.2 언어 수월성의 재정립: ‘기초 언어 인지’에서 ‘고도 언어 인지’로

현재 국내 통번역대학원에서 ‘언어 수월성’은 제도상으로 암묵적 전제가 되고 있다. 내국인 지원자에게는 TOEFL이나 IELTS와 같은 공인 어학성적을 요구하지 않으며, 단지 전공 언어별 번역 시험을 통해 능력을 평가한다. 이는 유럽이나 호주에서 CEFR 기준이나 공인 영어 시험 성적을 필수 요건으로 삼는 것⁷⁾과 대비된다. 또한 대학원 과정에서 제공되는 언어 교육은 대

6) 뎀(Pym, 2023)은 ‘번역 문해력(translation literacy)’을 “언제 번역에 의존할지, 번역물을 어떻게 읽고 비교할지, 언제 신뢰하고 개입할지, 그리고 나아가 어떻게 번역물을 생산할지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능력”으로 정의한다(p. 820).

7) 유럽 EMT 프로그램은 입학 요건으로 CEFR 기준 C1 이상의 언어 능력을 요구하며, A언어에 대해서는 원어민 수준인 C2 등급을 권장한다. 호주의 NAATI 역시 비영어권 출신에게 IELTS, TOEFL 등 공인 성적을 요구한다.

부분 선택 과목으로 운영되어 체계적 연계성이 부족하다⁸⁾. 대학에 따라 ‘모국어와 전공 외국어에 대한 완벽한 구사력을 입학 전제 조건’(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n.d.)으로 요구하거나, ‘모국어와 외국어의 완벽한 구사력’을 교육 목표(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n.d.)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지속적이고 구조화된 언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불확실하다.

테크놀로지 활용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난다. 번역 실무에서는 오래 전부터 컴퓨터 보조 번역(computer-aided translation, CAT)이 활용되어 왔으나, 컴퓨터 보조 언어 학습(computer-assisted language learning, CALL)이나 AI 기반 언어 교육은 통번역대학원 과정에서 거의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는 언어 교육이 테크놀로지 발전과의 접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통번역사의 언어 사용은 일반인과 달리 특정 주제 영역에 특화된 ‘특수 목적 언어(language for special purpose, LSP)’에 대한 능숙함을 요구하며, 통번역대학원의 언어 교육은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 ‘통번역 지향 언어 학습 및 교육(translation and interpreting-oriented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TILLT)’으로 발전해야 한다. 그런데 국내 통번역대학원은 오히려 일반인의 기초 언어 인지(BLC)에 기반한 범용 언어 능력 함양에 교육의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은 AI가 완벽히 모방할 수 있는 기초적인 언어 능력을 넘어, 인간만의 독보적인 ‘고도 언어 인지(HLC)’를 중심으로 언어 수월성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을 요구한다. AI 시대에 번역사의 언어 수월성은 단순한 언어 능력을 넘어 번역 품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생성형 AI를 포함한 기계번역이 기본적인 언어 인지 작업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번역사는 기계가 도달하지 못하는 고차원적 언어 인지와 비판적 판단을 담당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자구 수정이 아닌, 텍스트의 의미와 맥락을 정밀하게 조율하는 능력으로 이어진다.

최근 들어 특히 모국어 수월성의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있다. 외국어 학습에 치중한 나머지 번역사의 모국어 능력이 약화되는 현상이 지적되고 있

8) 국내 통번역대학원의 교과과정에는 한국어 및 B언어 숙달 강의가 존재하지만 대부분 선택 과목으로 운영된다. 한국외대 한영번역 전공만이 ‘한국어 작문’과 ‘영어 작문’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으며, 이는 번역 품질 저하의 주요 원인이 된다. 따라서 번역사는 출발 텍스트의 뉘앙스를 정확히 포착하여 도착어로 완벽하게 재구성할 수 있는 정교한 모국어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기술적 도구의 활용이 강조되는 시대일수록, 언어 수월성의 본질은 ‘비판적 문해력’과 ‘고도의 작문 능력’으로 귀결된다. 번역사는 단순히 텍스트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출발 텍스트의 전체 의미를 분석하고 도착 언어로 논리적이고 문법적으로 완결된 글을 생산해야 한다. 이는 기계번역과 차별화되는 자연스러운 어법 표현(*phraseology*) 능력, 즉 관용구와 담화 패턴을 자유롭게 구사하는 능력으로 이어진다.

또한 언어 수월성은 단순한 이중언어 능력을 넘어 ‘메타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포함해야 한다. 번역사는 두 언어와 문화가 작동하는 방식을 객관적으로 조망하며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문화 차이를 인식하고 상황에 적합한 언어 형식을 선택할 수 있는 중재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끝으로, 언어 수월성은 고정된 ‘능력(*competence*)’ 개념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전문성(*expertise*)’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이는 자격증이나 점수로 측정되는 결과물이 아니라, 전문 과업 수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성취로 정의된다. 따라서 번역사는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해 언어 능력을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결국, AI 시대의 번역사는 단순한 언어 변환자가 아니라 언어와 문화의 전문가로서, 비판적 문해력, 모국어 수월성, 어법 표현 능력, 메타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갖춘 동적인 전문성(*expertise*)을 통해 기계와 차별화된 번역 품질을 창출해야 한다.

4.3 직업 정체성의 재구축: ‘단순 번역사’에서 ‘번역사 그 이상’으로

AI 시대에 번역사의 정체성은 단순한 언어 변환자에 머무를 수 없다⁹⁾.

9) 사실, 번역 현장에서 활동하는 번역사는 스스로 단순 ‘언어 기술자’가 아니라 ‘의미 설계자’이자 ‘문화 중재자’를 자임한다. 또한 많은 연구들이 번역사가 단순 언어 변환자의 위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오늘날 각종 언어 서비스 제공업체(LSP)에서 번역사는 ‘linguist’나 ‘language specialist’로 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마찬가지로 트랜스크리베이션이나 로컬라이제이션 작업에서 번역사가 담당하는 업무는 ‘language translation’으로 지칭된다.

기계번역의 확산 속에서 번역사가 지속가능하게 생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구성하고 사회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번역사는 ‘문화 중재자’, ‘의미 설계자’, ‘언어 전략가’ 등으로 정체성을 확장하며, 자기 서사 구축, 전문성 강화, 관계 협상, 디지털 브랜딩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동시에 기계가 제공하지 못하는 문화적 맥락, 창의적 해석, 윤리적 책임을 통해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정체성 구축의 핵심 전략은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전문직 정체성 강화이다. 법률, 의료, 문학 등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특화 분야를 확보하고, 전문 자격증, 학술 활동, 컨퍼런스 참여를 통해 신뢰성을 높인다. 둘째, 디지털 브랜딩과 다중 정체성 수행이다. 번역사 외 콘텐츠 크리에이터, 언어 교육자, AI 컨설턴트 등 다중 역할 수행, 그리고 온라인 포트폴리오 운영 및 스토리텔링을 통한 대중과의 소통이 여기에 포함된다. 셋째, 관계 속 정체성 협상이다. 번역사는 단순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 ‘언어 전략 컨설턴트’로 자리매김하며, 디자이너, 마케터, 로컬라이제이션 전문가와 협력하여 종합적 가치를 제공하고 장기적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넷째, 자기 재구성과 지속 가능성이다. AI 활용 능력을 적극 함양하고, 하이브리드 번역 모델을 통해 생산성과 품질을 동시에 확보하며, 새로운 도구와 플랫폼을 빠르게 습득하는 ‘진화하는 전문가’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한다.

이러한 전략적 실천 활동들은 실제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번역사는 단순 언어 전문가를 넘어 ‘콘텐츠 현지화 전문가’로서 글로벌 시장에 맞는 문화적 변환을 수행하거나,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제작자’로서 광고·브랜딩 분야에서 창의적 언어 감각을 발휘할 수 있다. 또한 ‘언어 데이터 큐레이터’로서 AI 번역 모델 학습을 위한 데이터셋을 구축 및 검수하고, ‘커뮤니케이션 전략가’로서 다국어 메시지 전달 방식을 설계한다. 더 나아가 ‘윤리·품질 관리 전문가’로서 AI 번역의 편향과 오류를 검수하며, ‘기계번역 컨설턴트’로서 시스템 도입과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번역사 그 이상(translator plus)’을 위한 정체성 구축 작업은 전문성, 디지털 브랜딩, 관계 협상, 지속적 학습을 통해 이루어지며, 다양한 전문직 정체성을 통해 번역사는 AI 시대에도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는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AI의 파고를 넘는 ‘통합적 언어 조율사’로의 진화

AI 시대에 전문 번역사의 지속 가능성은 단순한 언어 능력이나 기술적 숙련에 좌우되지 않는다. 오히려 ‘언어 수월성’은 낡은 개념이 아니라, AI라는 도구를 통제하고 최적화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새롭게 재정립되어야 한다. 번역사는 기계가 도달할 수 없는 고도의 인지적 분석력, 비판적 문해력, 문화적 맥락을 관통하는 자연스러운 언어 표현력을 갖춘 ‘통합적 언어 조율사’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더구나 기계번역과 생성형 AI의 발전으로 번역사의 역할은 ‘창작자’에서 ‘감식자’로 이동하고 있다. 이제 번역사는 AI가 생성한 텍스트의 적합성을 판별하고, 고도의 언어 감수성을 바탕으로 이를 조율하는 ‘번역 감별사’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기계의 보조자가 아니라, 문화 중재자, 창의적 재구성자, 언어 감식가로서 새로운 전문성을 발휘하는 과정이다.

또한 번역사의 지속 가능성은 기본적으로 ‘정체성의 전략적 재구축’에 달려 있다. 번역사는 ‘번역사 그 이상’으로서 자신의 역량을 확장하고, 통번역사협회는 이를 뒷받침하는 보수 교육과 연수를 제공하며, 통번역대학원은 AI와 결합된 혁신적 커리큘럼을 통해 차세대 번역사를 양성해야 한다.

사실 AI라는 거대한 난관은 번역사에게 위기인 동시에 전문직의 지평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셰익스피어의 『헨리 5세』에서 인용된 “한 번 더 돌파를, 벗들이여, 한 번 더”라는 구절¹⁰⁾처럼, 번역사 역시 AI의 위협을 돌파하기 위해 다시 한 번 도약해야 한다. 인간과 AI의 협업 속에서 번역사는 단순한 언어 변환자가 아니라, 고도의 언어 감별력과 문화적 중재 능력을 갖춘 전문가로서 새로운 승리를 준비해야 한다. 따라서 번역사는 능동적인 태세 전환과 끊임없는 전문성 고도화를 통해 사라지는 직업이 아닌, 기술과 공존하며 진화하는 핵심 주체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해야 할 것이다.

10) “Once more unto the breach, dear friends, once more” (William Shakespeare, Henry V, Act III, Scene I, speech spoken by King Henry)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2026. 4. 20.). 한국고용직업분류 2025 개정 고시.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41200770
- 송연석. (2024). AI 시대의 번역 교육: 통번역대학원 한영과 교수자 심층 면접조사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5(3), 31-55.
- 심지혜. (2025. 9. 20.). 안경만 쓰면 간판·메뉴판 번역 ‘술술’길 안내도 ‘척척’... 스마트 안경 시대 ‘눈앞’. 뉴시스.
<https://v.daum.net/v/20250920110156725>
- 이영훈. (2024). 탈(脫)번역 시대 번역 및 번역학의 지속가능성과 그 교육적 함의. *번역·언어·기술*, 5, 45-68.
- 이영훈, 김순영, 성승은, 송연석, 이상빈, 이준호, 최경희. (2026). 변화의 시대 통번역교육의 방향: 라운드테이블 소개문 및 토론문. *번역·언어·기술*, 7, 7-42.
- 이지은, 최효은. (2025). AI 시대 전문 번역 교육에 대한 한영 번역 전공 교수자와 학습자의 인식 비교. *통역과 번역*, 27(3), 171-211.
-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n.d.). Home. 2026. 3. 29. 검색,
<https://gsti.ewha.ac.kr/gsti/index.do>
- 정하정. (2026. 4. 23.). [김형민 변호사의 IT경영법무] <23> AI 시대의 업무 경쟁력. 전자신문. https://v.daum.net/v/20260423092705951?s=print_news
- 조윤주. (2026. 4. 16.). 딥엘, 실시간 음성 번역 출시...줌·팀즈서 통역사 없이 회의. 파이낸셜뉴스. <https://v.daum.net/v/20260416145259687>
- 최서은, 김송이, 김원진. (2026. 4. 20.). AI가 전부인 줄 아나: 어느 번역가의 혼잣말... ‘팔각’에 시작된 번역가 분투기. 경향신문.
https://v.daum.net/v/20260420060900511?s=print_news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n.d.). Home. 2026. 3. 29. 검색,
<https://gsit.hufs.ac.kr/sites/gsit/index.do>
- Ayvazyan, N., Torres-Simón, E., & Pym, A. (2024). What kind of translation literacy will be automation-resistant? In Y. Peng, H. Huang & D. Li

- (Eds.), *New advances in transl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and pedagogy* (pp. 121-140). Springer.
- Bayón Cenitagoya, C., & Guerrero García, B. (2024). Donna J. Haraway's cyborg: A feminist lens for translation in the era of the technological turn. *Bridge*, 5(2), 103-122.
- Briva-Iglesias, V., & O'Brien, S. (2022). The language engineer: A transversal, emerging role for the automation age. *Quaderns de Filologia: Estudis Lingüístics*, 27, 17-48.
- Caza, B. B., Vough, H., & Puranik, H. (2018). Identity work in organizations and occupations: Definitions, theories, and pathways forward.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39(7), 889-910.
- Cerezo Herrero, E. (2026). *The Routledge guide to teaching foreign languages for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Routledge.
- Ciller, J., & Colina, S. (2025). Language proficiency in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programs: Insights from administrators and instructors.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Studies*, 20(3), 391-429.
- Cronin, M. (2003). Cyborgs and machine translation. In M. Cronin, *Translation and globalization* (pp. 111-119). Routledge.
- De Peiris, N., & Kaluarachchi, K. A. S. P. (2023). Bourdieu, strategy, and identity work: A case from a manufacturing organisation in Sri Lanka. *Vidyodaya Journal of Management*, 9(2), 162-187.
- Do Carmo, F., & Moorkens, J. (2023). Translation's new high-tech clothes. In G. Massey, E. Huertas-Barros & D. Katan (Eds.), *The human translator in the 2020s* (pp. 11-26). Routledge.
- Ehrensberger-Dow, M., Delorme Benites, A., & Lehr, C. (2023). A new role for translators and trainers: MT literacy consultants. *The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er*, 17(3), 393-411.
- Fantinuoli, C. (2026, July 27). The end of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studies as we know them. Claudio Fantinuoli.
<https://www.claudiofantinuoli.org/2026/07/27/the-end-of-translation-and-interp>

- reting-studies-as-we-know-them/
- Green, T. (2026, April 15). AI and the translators left behind: When good enough wins. SmarterArticles.
<https://smarterarticles.co.uk/ai-and-the-translators-left-behind-when-good-enough-wins>
- Haraway, D. (1985). A manifesto for cyborgs: Science, technology, and socialist feminism for the 1980s. *Socialist Review*, 15(2), 65-107.
- Hulstijn, J. H. (2015). *Language proficiency in native and non-native speakers: theory and research*. John Benjamins.
- Johnson. (2022, December 3). Rise of the cyborgs: The translator of the future is a human-machine hybrid. *The Economist*.
<https://www.economist.com/culture/1970/01/01/the-translator-of-the-future-is-a-human-machine-hybrid>
- Katan, D., & Spinzi, C. (2022). The translators *plus* and how they have moved towards the collaborative circle. In M. Agorni & G. De Bonis (Eds.), *Collaboration in translation: From training to platforms and publishing* (pp. 77-98), Paolo Loffredo.
- Lang, M. F. (1994). The problem of mother tongue competence in the training of translators. In M. Snell-Hornby, F. Pöchhacker & K. Kaindl (Eds.), *Translation studies: An interdisciplinary* (pp. 395-399). John Benjamins.
- Massion, F. (2026). Redefining professional roles in an AI-driven industry.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6(1), 13-28.
- Melby, A. K., & Hague, D. R. (2019). A singular(ity) preoccupation: Helping translation students become language-services advisors in the age of machine translation. In D. B. Sawyer et al. (Eds.), *The evolving curriculum in interpreter and translator education* (pp. 205-228). John Benjamins.
- Mohsen, M. A., Althebi, S., Alsagour, R., Alsalem, A., Almudawi, A., & Alshahrani, A. (2023). Forty-two years of computer-assisted language learning research: A scientometric study of hotspot research and trending

- issues. *ReCALL*, 36(2), 230-249.
- Musumeci, A. (2025). *Rethinking translators: Constraints, affordances, postures*. Springer.
- NAATI. (2026, March 29). Language proficiency requirements.
<https://www.naati.com.au/certification/prerequisites-training/language-proficiency/>
- Nord, C. (2023). Basic translation competence: Teaching languages for translation. In O. I. Seel, S. Roiss & P. Zimmermann González (Eds.), *Instrumentalising foreign language pedagogy in translator and interpreter training* (pp. 12-22). John Benjamins.
- O'Brien, S. (2024). Human-centered augmented translation: Against antagonistic dualisms. *Perspectives*, 32(3), 391-406.
- Oliver, D. (2025). Identity work as a strategic practice. In D. Golsorkhi, L. Rouleau, D. Seidl & E. Vaara (Eds.), *Cambridge handbook of strategy as practice* (pp. 332-345). 3rd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lohan, M. (2021). *Translation and practice theory*. Routledge.
- Oxford English Dictionary. (n.d.). Android, n. & adj. In *Oxford english dictionary*. <https://www.oed.com>
- Oxford English Dictionary. (n.d.). Cyborg, n. In *Oxford english dictionary*. <https://www.oed.com>
- Pym, A. (2023). Active translation literacy in the literature class. *PMLA*, 138(3), 819-823.
- Pym, A. (2026). Translation technologies as the end of translation as we know it: Empiricism as a search for a way forward. In P. Šveda, M. Djovčoš, & E. Perez (Eds.), *Confronting digital dilemmas in translator and interpreter training* (pp. 18-34). Routledge.
- Qin, L., Chen, Q., Zhou, Y., Chen, Z., Li, Y., Liao, L., Li, M., Che, W., & Yu, P. S. (2025). A survey of multilingual large language models. *Patterns*, 6(1), 101118.
- Robertson, S. (2025, November 7). Not just a translator. Institute of Translation

- and Interpreting. <https://www.iti.org.uk/resource/not-just-a-translator.html>
- Robinson, D. (1998). The invisible hands that control translation. *Quaadersn*, 1, 83-87.
- Robinson, D. (1999/2000). Cyborg translation. *Athanor*, 10(2), 219-233.
- Robinson, D. (2022). The (hyper)cyborg translator. In D. Robinson, *The experimental translator* (pp. 35-69). Palgrave Macmillan.
- Sakamoto, A. (2021). The value of translation in the era of automation: An examination of threats. In R. Desjardins, C. Larsonneur & P. Lacour (Eds.), *When translation goes digital: Case studies and critical reflections* (pp. 231-255). Palgrave Macmillan.
- Sapiro, G. (2020). Stratégie(s). In G. Sapiro (Ed.), *Dictionnaire international Bourdieu* [국제 부르디외 사전] (pp. 813-816). CNRS Éditions.
- Sawyer, D. B. (2026). Evolving curriculum models in the AI era. In A. K. F. Cheung, D. Li, K. Liu & R. Moratto (Eds.), *Technology and interpreting: Navigating the digital age* (pp. 121-140). Routledge.
- Schmidhofer, A. (2022). Translation and interpreting-oriented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TILLT): Where do we stand? *Sendebär*, 33, 264-283.
- Shah, N. (2008). Material cyborgs; asserted boundaries. *European Journal of English Studies*, 12(2), 211-225.
- Shafaieh, C. (2019, March 8). Rosi Braidotti on collective positivity in the face of human extinction: “We were never considered fully human, so why should we care about this crisis?” Harvard Graduate School of Design. <https://www.gsd.harvard.edu/2019/03/we-were-never-considered-fully-human-so-why-should-we-care-about-this-crisis-rosi-braidotti-on-collective-positivity-in-the-face-of-human-extinction/>
- Shakespeare, W. (1600). Henry V, act III, scene I [Once more unto the breach, dear friends]. Academy of American Poets. <https://poets.org/poem/henry-v-act-iii-scene-i-once-more-onto-breach-dear-friends>
- Snow, D. A., & Anderson, L. (1987). Identity work among the homeless: The

- verbal construction and avowal of personal identi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2(6), 1336-1371.
- Spinzi, C. (2021). Translation plus: Introduction. *Cultus*, 14, 8-14.
- Tiselius, E. (2025). Interpreting and language proficiency. In C. D. Mellinger (Ed.), *The Routledge handbook of interpreting and cognition* (pp. 238-253). Routledge.
- Torres-Hostench, O. (2022). Will translators be cyborgs? What would make a cyborg translator. *Revista Tradumàtica*, 20, 268-275.
- Venkatesan, H. (2023). Technology preparedness and translator training: Implications for curricula. *Babel*, 69(5), 666-703.
- Zetzsche, J. (2023). The very, very diverse world of translators. *Digital Translation*, 10(1), 121-127.

Sustainability of professional translators in the AI era: Posture transformation, language proficiency redefinition, and identity reconstruction

Yeong-Houn Yi

Department of French Language and Literature, Korea University

Abstract

The accelerating development of large language models and neural machine translation is reshaping the translation industry and challenging the sustainability of professional translators. As machine-generated output increasingly meets market demand for “good enough” translation, translators risk deprofessionalization, often relegated to repetitive post-editing. This study proposes a three-dimensional framework to strengthen professional resilience: posture transformation, redefinition of language proficiency, and identity reconstruction. First, translators must adopt a proactive “cyborg” posture, strategically integrating AI tools to achieve augmented translation that balances machine efficiency with human cognitive oversight. Second, language proficiency should evolve beyond replicable Basic Language Cognition toward Higher Language Cognition and specialized phraseological expertise. This positions translators as “Translation Connoisseurs” who critically refine AI outputs for nuanced cultural and contextual accuracy. Third, identity reconstruction is essential: translators should transition from “language converters” into “Translator Plus,” embracing roles as multilingual communication consultants and cultural mediators. Through digital branding, storytelling, and collaborative negotiation, they can secure sustainable, high-value positions in the AI-driven market. Ultimately, the future of translation lies in “integrated language mediators” who strategically employ AI while maintaining exclusive authority over advanced cognitive and cultural tasks, ensuring long-term professional sustainability.

Keywords: Language proficiency; posture transformation; professional identity; sustainability; professional translator

키워드: 언어 수월성, 전문 번역사, 지속 가능성, 직업 정체성, 태세 전환

이영훈(<https://orcid.org/0009-0000-2046-1291>)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

erasme@korea.ac.kr

논문 투고일: 2026년 8월 15일

1차 심사 완료일: 2026년 9월 1일

2차 심사 완료일: 2026년 9월 8일

게재 확정일: 2026년 9월 15일